

KIA 팬들 가슴에 '한·승·혁' 세글자 던졌다



데뷔 첫 선발승...배짱투·위기관리 빛나 안치홍 투런 홈런...SK 꺾고 3연패 탈출

막내 한승혁이 위기의 '호랑이 군단'을 구했다.

KIA 타이거즈의 한승혁(21)이 20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6.2이닝 1실점의 호투로 4-1 승리를 이끌어낸 영웅이 됐다.

홀튼-양현종-송은범을 내세우고도 3연패에 빠졌던 KIA는 막내의 호투로 3연패의 늪에서 탈출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승혁은 막강 SK 타선을 상대로 주눅들지 않는 피칭을 선보였다. 1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한승혁은 2-0으로 앞선 2회 스카에게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첫 위기를 맞았다. 박정권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으며 원아웃을 만들었지만 이재원의 좌전 적시타가 터지면서 2-1. 이후 플라이 두 개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한승혁은 3회를 삼자범퇴로 봉쇄한 뒤 선두타자를 내보낸 4회에는 스카를 병살타로 처리하면서 1점의 리드를 지켰다.

5회 한승혁의 배짱투가 돋보였다. 한승혁이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이재원과 나주환을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투 아웃을 만들었다.

그러나 볼카운트 승부 끝에 조인성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김성현에게 중전안타를 맞았다. 김강민까지 볼넷으로 내보내며 맞은 만루 위기, 한승혁이 볼카운트 1B-2S에서 박재상을 바깥쪽 꼭 찬 직구로 돌려세우며 승기를 가져왔다.

6회도 삼자범퇴로 처리한 한승혁은 7회 플라이 두 개로 아웃카운트를 잡은 뒤 베테랑 김태영과 교체됐다.

한승혁은 6.2이닝을 4피안타 3사사구 4탈삼진 1실점으로 막으며 자신의 최다투구수(117) 최다이닝(6.2) 기록을 세웠다. 직구 최고구속 153km를 찍으며 자신의 최고 스피드도 경신했다. 또 경기가 4-1 승리로 끝나면서 한승혁은 두 번째 도전 끝에 선발 첫승을 수확했다.

타석의 막내 안치홍(24)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1회 이대형의 볼넷과 박기남의 희생번트 그리고 필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만든 KIA는 2회 안치홍의 중전안타로 다시 공격의 기회를 잡았다. 신종길의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김주형의 내야안타 때 유격수 김성현의 악송구가 나오면서 안치홍이 홈을 밟았다.

2-1의 불안한 리드가 이어지던 9회 초 안치홍이 승리에 쐐기를 박는 투런포를 날렸다.

나지완의 좌전안타로 만들어진 1사 1루에서 안치홍이 SK 투수 박정배의 147km짜리 몸쪽 높은 직구를 좌중간 담장으로 넘기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날 윤희상을 상대로 시즌 첫 홈런포를 작성했던 안치홍은 두 경기 연속 한방을 날리며 주전들의 부상과 연패로 신음하던 팀에 값진 승리를 안겨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세의 영웅 20일 오후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4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KIA 선발 한승혁이 투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일고·동성고·화순고, 선두싸움 치열

고교야구 주말리그

주말리그 선두 싸움이 치열하다.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라권 경기가 19·20일 여수 진남 구장에서 열렸다. 무패행진을 달리던 광주 동성고와 광주일고가 1승1패를 더하며 4승1패로 동률을 이뤘다. 화순고도 1승을 더하면서 3개 팀이 4승1패의 전적으로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다.

19일 결승전같은 광주일고와 동성고의 맞대결이 진행됐다. 초반부터 화끈한 화력전이었다. 2회까지 6점과 7점을 주고 받은 끝에 광주일고가 6회 12-7, 일몰플드게임승을

거뒀다.

4연승에 성공했던 광주일고는 20일 군산 상고와의 경기에서는 6-8로 지면서 4승1패를 기록했다.

광주일고에 1패를 내준 동성고는 정음인 상고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서 터진 신범수의 끝내기 투런포로 8-6 승리를 거두며 4승1패로 균형을 맞췄다.

화순고도 진흥고와 연장 승부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9로 승리를 신고하며 4승1패를 만들었다.

효천고가 5연패에 빠졌고, 인상고는 1승5패로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진흥고는 2승3패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날 경기에 따라 전반기 왕중왕전에 출전할 4개팀이 확정됐다. 군산상고가 3승2패가 되면서 동성고·광주일고·화순고와 함께 전반기 왕중왕전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전라권 우승팀은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주말리그 전반기 최종전을 통해 가려진다.

광주일고가 우승에 가장 근접해 있다. 광주일고가 최하위에 처진 효천고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승자승 원칙에 따라 동성고와 화순고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짓는다. 광주일고가 패배할 경우에는 동성고와 화순고 경기의 승자가 전라권 우승팀에 등극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 불방망이

화이트삭스전 3안타 팀 6-3 승 이끌어...타율 3할 복귀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32)가 올 시즌 개인 한 경기에 3안타를 몰아치며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20일(한국시각)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서 1번·지명타자로 출전한 추신수는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상대 좌완 선발 호세 퀴타나의 2구째 129km짜리 커브를 잡아당겨 우전안타를 쳤다. 16일 시애틀 매리너스전부터 시작한 연속 경기 안타 행진이 5경기로 늘었다.

추신수는 엘비스 앤드루스의 중전안타 때 3루에 도달했고, 이어진 알렉스 루이스의 우

익수 쪽 2루타 때 홈을 밟아 3경기 연속 득점 기록도 이어갔다.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퀴타나의 147km 직구를 공략해 좌중간 안타를 친 그는 빠르게 2루까지 내달려 2루타를 만들었다. 4-1로 앞선 4회 2사 2루에서는 다시 한 번 퀴타나의 147km 빠른 공을 공략해 우익수 쪽 2루타를 쳐내 2루주자 조시 윌슨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번 시즌 추신수의 5번째 타점이다.

4타수 3안타로 경기를 마친 추신수는 타율을 0.290에서 0.318(66타수 21안타)로 끌어올리며 14일(0.302) 이후 6일 만에 3할 타율을 회복했다. 추신수가 한 경기 3안타를 친 것은 올시즌 처음이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총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서울점 02)765-9940